COMPANY UPDATE

2026. 4. 27

금융/소비재팀

김재우 팀장
jaewoo79.kim@samsung.com

윤희재 Research Associate
heejae23.yoon@samsung.com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우리금융지주 (316140)

1Q 실적: CET-1 비율 레벨업이 '신의 한수'

- 우리금융의 1Q 당기순이익은 6,038억원으로 2.1% y-y 감소. 하지만, 이자이익의 2.3% y-y 성장과 비이자이익 26.6% y-y에 따른 경상이익 증가에 초점 필요.
- 1Q 중 백미는 자산재평가를 통한 CET-1 비율의 70bp q-q 개선. 이에 CET-1 비율은 1Q 말 13.6%로 업계 내 최고 수준을 기록 (vs KB금융 13.63%).
- 동사에 대한 투자의견을 BUY로 상향조정. CET-1 비율 급등 기반으로 성장력 제고 및 주주환원율 레벨업 예상과 생보사 통합 등 구조적 변화 가속화에 초점 필요.

▶ 종목 정보

BUY

목표주가	45,000원	28.4%
현재주가	35,050원	
시가총액	25.7조원	
주식수 (유동주식 비중)	734,076,320주 (91.9%)	
52주 최저/최고	16,810원/40,800원	
60일-평균거래대금	832.6억원	

▶ 수익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우리금융지주 (%)	8.5	37.5	103.8
Kospi 지수 대비 (%pts)	-6.9	-16.3	-20.6

▶ 주요 전망치 변화

(원)	신규	기존	증감
투자의견	BUY	HOLD	
목표주가	45,000	44,000	2.3%
2026E EPS	4,773	4,754	0.4%
2027E EPS	5,572	5,472	1.8%

▶ 컨센서스

커버 증권사 수	19
목표주가	42,521
추천 점수	4.0

※ 추천점수: 4 이상 → BUY, 3 → HOLD, 2 이하 → SELL

WHAT'S THE STORY?

당기순이익 1Q 6,038억원으로 2.1% y-y 감소 – 경상 이익은 개선에 초점: 1Q 당기순이익은 6,038억원으로 2.1% y-y 감소. 이익 감소는 일회성 비용 영향으로 1) 이자이익이 2.3% y-y 증가 및 2) 보험사 인수 등의 영향에 따른 비이자이익 26.6% y-y 증가에 초점 필요, 참고로, 일회성 제외 기준 당기순이익을 8,750억원으로 언급.

CET-1 비율 13.6%로 급등 – 주주환원율은 빠른 속도로 경쟁사 Catch up 기대: 이익 감소에도 불구, 이번 분기의 핵심은 CET-1 비율의 가파른 상승. 동사는 CET-1 비율이 자산재평가 효과로 70bp q-q 상승한 13.7%를 기록하며, 동사의 관리 목표 기준 13.2%를 큰 폭으로 상회하였고, 동사 또한 당초 시장 기대보다 속도감 있는 주주환원율 상향 가능성을 언급. 이에 우리는 동사의 26년 주주환원율 전망을 당초 41%에서 45%로 상향조정하고, 27년 주주환원율은 49%로 당초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50%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

BUY로 투자의견 상향 조정 – CET-1 비율 상승이 '신의 한수': 동사에 대한 투자의견을 BUY로 상향조정. 또한, 27년 이익 전망을 0.9%, 목표주가를 45,000원 (26E 목표 PBR 0.97배)으로 상향조정. 동사는 26E PBR 0.76배로 매력적인 수준에 거래되고 있는 가운데, 1) CET-1 비율 급등으로 은행/비은행 모든 부문에 보다 적극적 자산 성장이 기대되고, 2) 주주환원율의 속도감 있는 상승이 예상되며, 3) 예상대비 빠르게 생보사 완전 자회사화 및 통합으로 27년부터 ROE 기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점에 초점 필요.

분기 실적

(십억원)	1Q26	증감 (%)		차이 (%)	
		전년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삼성증권 추정	컨센서스
영업이익	808.1	(7.0)	14.0	(26.5)	-
충전영업이익	1,377.9	2.1	4.2	(8.7)	-
충당금적립액	526.8	19.2	(6.7)	44.1	-
당기순이익	603.8	(2.1)	83.9	(19.4)	(21.5)
기타지표 (%)					
대출성장률	0.71	0.1	0.6		
NIM	1.51	(0.0)	0.0		
고정이하여신	0.68	0.0	0.1		

자료: 우리금융지주, Fnguide, 삼성증권 추정

Valuation summary

	2025	2026E	2027E
Valuation (배)			
P/E	6.6	7.3	6.3
P/B	0.6	0.8	0.7
Div yield (%)	4.9	4.3	4.7
EPS 증가율 (%)	2.4	12.1	16.7
ROE (%)	10.1	10.6	11.4
주주환원율 (%)	36.6	44.5	48.8
주당지표 (원)			
EPS	4,256	4,773	5,572
BVPS	43,451	46,249	50,292
DPS	1,360	1,500	1,650

삼성증권

1Q 실적 - 경상적 이익 체력 개선의 확인

당기순이익 1Q 6,038억원으로 2.1% y-y 소폭 감소 - 일회성 비용 요인에 가려진 실적

1Q 당기순이익은 6,038억원으로 2.1% y-y 소폭 감소. 동사의 1Q26 당기순이익이 전년동기대비 소폭 감소한 이유는 거액의 일회성 비용 요인에 기인. 동사는 1Q 중 1) 1,830억원의 희망퇴직 관련 비용과 2)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에 대한 충당금 1,380억원을 인식한 것은 물론, 3) 환율 상승에 따른 외화환산손실 및 4) 금리 상승에 따른 유가증권 손실 등의 실적 부담 요인이 발생.

하지만 경상적 실적 역량은 개선- 경상 이익은 9천억원 수준

이와 같은 이례적 요인을 제외하면, 동사의 경상적 이익 창출 역량은 지난 해에 비해 제고된 것으로 평가 가능. 특히 1) 이자이익이 2.3% y-y 증가 및 2) 보험사 인수 등의 영향에 따른 비이자이익 26.6% y-y 증가에 초점 필요, 참고로, 일회성 제외 기준 당기순이익을 8,750억원으로 언급.

분기 및 연간 실적 추이

(십억원)	1Q25	2Q25	3Q25	4Q25	1Q26	%q-q	%y-y
당기 순이익	616.7	935.3	1,243.9	328.4	603.8	83.9	(2.1)
		2022A	2023A	2024A	2025A		%y-y
연간 이익		3,141.7	2,506.3	3,086.0	3,124.3		1.2

자료: 우리금융지주, 삼성증권

1Q26 일회성 비용

1Q26	(십억원)
희망퇴직	(183.0)
인도네시아 법인 충당금	(138.0)
총계	(321.0)

자료: 우리금융지주, 삼성증권

이자이익 성장 + 비은행 계열사 강화 통한 비이자이익 성장까지

그룹 이자이익 2.3% y-y 증가 - 견조한 대출 성장에 NIM 상승까지

그룹 이자이익은 2.3% y-y 증가. 원화 대출성장률이 0.7% q-q, 2.0% y-y로 점차 회복세를 보인 가운데, 그룹 NIM이 1.76%로 전분기와 동일하되 6bp y-y 상승한 것이 주효.

비이자이익 26.7% y-y 증가 - 비은행 강화의 효과

동사 비이자이익은 26.7% y-y의 견조한 증가세 시현. 1Q 중 금리 상승에 따른 유가증권 관련 손익 감소 및 환율 상승에 따른 환차손 부담이 있었으나, 보험사 인수 및 증권사 호조 등의 효과가 주효했던 것으로 판단. 참고로, 은행 기준 수수료 제외 비이자이익은 1.132억원 y-y 감소한 반면, 그룹 기준 해당 이익은 302억원 y-y 증가. 이는 동사가 추구해 온 Organic 및 Inorganic 방식을 통한 비은행 부문 강화 효과라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 가능.

이자이익 및 주요 지표 추이

(십억원)	1Q25	2Q25	3Q25	4Q25	1Q26	%q-q	%y-y
이자이익	2,252.0	2,261.8	2,216.8	2,300.2	2,303.2	0.1	2.3
NIM (은행)	1.44	1.45	1.48	1.49	1.51	0.02	0.07
NIM (그룹)	1.70	1.71	1.75	1.76	1.76	0.00	0.06
원화대출 (조원)	297.1	299.1	300.5	300.8	302.9	0.7	2.0
가계	143.8	147.6	149.7	150.4	150.6	0.1	4.7
기업	151.6	149.8	149.0	148.2	150.1	1.3	(1.0)
SME	120.7	117.9	116.8	116.2	115.4	(0.7)	(4.4)
대기업	31.0	32.0	32.2	32.1	34.7	8.3	12.1

자료: 우리금융지주, 삼성증권

Credit cost 개선세 지속 전망 – 타금융그룹과 달리 레거시 자산이 없음에 초점

1Q Credit cost 0.53%로 7bp y-y 상승 – 하지만, 일회성 제외 시 0.39%

그룹 기준 1Q Credit cost는 0.53%로 7bp y-y 상승. 다만, 이는 인도네시아 법인에 대한 일시적 충당금 1,380억원에 따른 것으로 이를 제외한 Credit cost는 0.39%를 기록, 동사의 경상 대손비용률 0.40% 수준에서 관리된 것으로 설명. 실제로 그룹 기준 고정이하여신 비율과 은행 기준 연체율은 각각 0.68%와 0.38%로 5bp 및 4bp q-q 상승에 그쳤으며, 전년동기에 비해서는 각각 1bp 하락, 1bp 상승하며 유사한 수준에서 유지.

26년 CCR 목표 40bp 유지 – 이전의 더딘 성장 감안 시 단기간 부담 증가 가능성은 낮음

동사는 26년 Credit cost 가이던스는 경상적인 40bp 유지 목표를 유지한다고 언급. 이는 동사의 그룹 대손비용을 전년대비 20% 감축을 시사.

현재 매크로 환경을 감안할 때, 건전성 리스크는 여전히 상존하나, 단기간에 충당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 1) 동사는 CET-1 비율 제고를 위해 은행 원화대출 기준 성장률이 25년 연간 0.3%, 24년부터 2년간은 6.7%로 낮게 관리되었고, 2) 다른 은행계 금융그룹들과 달리 증권사가 부동산 PF대출과 같은 부동산 금융 등에 대한 레거시 자산이 없기 때문.

건전성 지표 추이

(%)	1Q25	2Q25	3Q25	4Q25	1Q26	%, %pq-q	%, %py-y
총여신 (조원)	386.1	384.0	394.5	400.0	405.4	1.3	5.0
충당금 전입액 (십억원)	441.9	508.8	572.4	564.4	526.8	(6.7)	19.2
Credit cost (분기중)	0.46	0.53	0.58	0.56	0.53	(0.03)	0.07
Credit cost (누적)	0.46	0.49	0.52	0.54	0.53	(0.01)	0.07
NPL비율	0.69	0.71	0.70	0.63	0.68	0.05	(0.01)
연체율	0.37	0.40	0.36	0.34	0.38	0.04	0.01
		2022A	2023A	2024A	2025A		%y-y
Credit cost		0.26	0.54	0.45	0.54		0.09

자료: 우리금융지주, 삼성증권

비은행 부문 이익 기여도 개선 가시화 – 1Q 비은행 이익기여도 23.5%

비은행 부문 이익 1,630억원으로 167% y-y 증가 – 보험사 인수가 주효

우리금융의 비은행 부문 이익은 1Q 중 1,630억원으로 167% y-y 증가. 이는 1) 1Q 중 450억원의 이익을 창출한 생보사 인수가 주효했던 가운데, 2) 카드와 캐피탈이 각각 33.3% 및 29.0% y-y 증가한 440억원과 4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였고, 3) 증권은 14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 (+1,300% y-y).

1Q 비은행 이익기여도 23.5% - 단기 목표 연간 20% 달성 가시화

우리금융은 연초에 동사의 비은행 이익 기여도를 25년 9.5%에서 26년 20%, 중장기 30% 이상으로 높일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이와 관련 올해 1Q 중 동사 비은행 이익 기여도는 23.5%로 14.7%p y-y 상승한 것은 물론 동사의 목표 20%를 상회하는 수준을 달성, 올해 목표 달성 가시성은 높아졌다고 판단.

비은행 이익 기여도 개선이 이익 및 ROE 제고에 관건 - 비은행 부문 강화 위한 플러스 알파 필요

향후 동사 또한 이익 및 ROE 제고를 위한 관건은 추가적인 비은행 부문의 강화로 판단. 이러한 가운데, 1Q까지의 비은행 이익기여도의 빠른 상승은 긍정적 요인. 하지만, 이제부터 동사는 비은행의 레벨업을 위한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 이는 1) 1Q 중 비은행 부문 개선은 생보사 인수 영향에 기인하는 바가 큰 가운데, 2) 현재 보유 비은행 자회사들은 규모 측면에서 시장 내 입지 강화가 필요하기 때문.

비은행 부문 이익 및 이익기여도 추이

(십억원, %)	1Q25	2Q25	3Q25	4Q25	1Q26
비은행 손익	61	117.3	308.8	277.6	163
비은행 이익기여도	8.8	7.0	11.9	9.6	23.5

참고: 25년은 분기 누적 기준
자료: 우리금융지주, 삼성증권

CET-1 비율 13.6%로 업계 최고 수준 달성 – 자산재평가가 신의 한수

CET-1 비율 13.6%로 급등 – 자산재평가로 70bp q-q 상승을 한 방에

이번 분기의 핵심은 분기 이익 규모가 아닌 CET-1 비율의 가파른 상승. 동사는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였고, 이에 따른 효과로 CET-1 비율이 70bp q-q 상승한 13.7%를 기록. 이는 동사의 관리 목표 기준 13.2%를 큰 폭으로 상회한 것은 물론, 업계 최고 수준의 CET-1 비율을 보유한 KB금융과 유사한 수준까지 단번에 상승하였음을 의미.

CET-1 비율 제고에 따른 기대 1. 주주환원율은 빠른 속도로 경쟁사 Catch up 기대

CET-1 비율의 여력이 큰 폭으로 확대된 것은 물론 동사 계획 수준을 크게 상회한 만큼, 동사에 대한 할인요인으로 작용하였던 낮은 주주환원율은 빠르게 개선될 전망. 동사 또한 당초 시장 기대보다 속도감 있는 주주환원율 상향 가능성을 언급. 이에 우리는 동사의 26년 주주환원율 전망을 당초 41%에서 45%로 상향조정하고, 27년 주주환원율은 49%로 당초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50%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

CET-1 비율 제고에 따른 기대 2. 비은행 부문 강화

CET-1 비율의 제고는 동사의 비은행 부문 강화에 여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 동사의 또 다른 할인 요인은 낮은 비은행 이익기여도. 특히, 자본비율까지 낮은 만큼, 주주환원 강화와 비은행 부문의 자본 확대라는 두 가지 수요를 단번에 모두 충족하기는 어려웠음. 하지만, 금번 자본비율 제고로 인해 비은행 부문 강화 속도 또한 주주환원 강화와 동시에 이뤄질 여지가 높아졌음에 주목 필요.

주주환원 및 CET-1 비율 추이

(십억원)	1Q25	2Q25	3Q25	4Q25	1Q26	%q-q	%y-y	2024A	2025A	%, %py-y
CET-1 비율	12.45%	12.82%	12.95%	12.89%	13.60%	0.72%	1.15%	12.13%	12.89%	0.75%
RWA (조원)	233.2	229.5	236.0	234.6	241.2	2.8	3.4	235.1	234.6	(0.2)
총 주주환원	297.8	146.8	146.8	557.9	260.9	(53.2)	(12.4)	1,027.7	1,143.5	11.3
자사주	150.0	0.0	0.0	0.0	100.0	-	(33.3)	136.6	150.0	9.8
배당	147.8	146.8	146.8	557.9	160.9	(71.2)	8.9	891.0	993.5	11.5
총 주주환원율 (%, %p)	48.3	15.7	11.8	169.9	43.2			33.3	36.6	3.3

자료: 우리금융지주, 삼성증권

비은행 강화 위한 속도감 있는 구조적 변화에 주목 – 생보사와 증권사

이러한 가운데, 금일 동사가 공시한 1) 동양생명 완전자회사화 및 생보사 통합과 2) 증권사 추가 유상증자는 비은행 이익 기여도 제고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비은행 강화 위한 속도감 있는 구조적 변화에 주목 1. 동양생명 완전자회사화 및 생보사 통합

우리금융은 이사회를 통해 동양생명과 우리금융간 주식 교환을 결정. 주식 교환 비율은 동양생명 1주당 우리금융 보통주 0.2521주이며, 우리금융은 주식교환 대상에게 신주를 발행해 교부하는 구조. 오늘 7월 24일 동양생명은 임시주총에서 이에 대한 특별결의를 거치고 8월 중 주식교환 완료 후 상장폐지 및 우리금융 완전자회사로 편입 예정.

금번 동양생명 완전자회사화는 당초 예상보다 이른 것으로 생보사 역량 강화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는 관점에서 긍정적. 동사는 동양생명의 완전자회사화에 이어 ABL생명과의 통합을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1) 두 생보사의 통합을 통해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2) 그룹과의 시너지를 보다 용이하게 확대함으로써 실적 개선 속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이와 관련된 본격적인 실적 개선 효과는 해당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26년보다는 27년에 점차 가시화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

한편, 금번 Deal이 우리금융 펀더멘털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 1) 동사는 자산재평가에 따른 투자 한도 증가와 주식교환 시 신주 발행 등으로 인해 동양생명 완전 자회사화에 따른 CET-1 비율 하락 부담은 거의 없는 것으로 언급하였고, 2) 동양생명의 유통 주식에 대한 주식교환이 모두 이뤄지더라도 동사 주식 수 증가 효과는 1.2%로 크지 않기 때문.

비은행 강화 위한 속도감 있는 구조적 변화에 주목 2. 증권사 1조원 유상증자 및 추후 계단식 추가 유상증자 가능성 언급

동사는 증권 계열사인 우리투자증권에 대해 1조원 규모의 유상증자 결의를 공시. 금번 증자 완료 시 우리투자증권의 자본총액은 2.2조원으로 증가하며 이는 자본규모 기준 업계 11위 규모. 동사는 이를 바탕으로 대형 Deal 수행 능력 강화 등을 통한 IB부문 강화, 운용자산 다각화와 상품 포트폴리오 확대, 플랫폼 고도화 및 자산관리 역량 제고 등을 추진할 것으로 언급.

금번 우리금융의 우리투자증권 유상증자는 단기간의 이익 증가보다는 라이선스 확보를 위한 기반 강화 관점에서 접근 필요. 1) 3대 금융그룹 산하 증권사들의 자본총계는 이미 6조원 내외를 넘어선 만큼 여전히 대형사와의 규모는 물론 영위 가능한 영업 영역 관점에서 격차가 불가피하고, 2) 증자 이후에도 인프라 및 인력 구축은 물론 경험 축적 등에 소요되는 시간이 고려되어야 하며, 3) 리테일 부문 또한 MTS 출시는 물론 은행과의 협업 구축 등을 통한 시너지 구축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

동사 또한 증권사 강화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자본 투입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동사는 우리투자증권에 대한 추가 유상증자 가능성도 시사. 종투사 라이선스 확보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3조원 자본이 필요한 만큼, 27년 중 자본 축적 정도에 따라 추가적인 유상증자를 고려할 수 있음을 언급한 것. 즉, 금번의 1조원 유상증자는 최종 목적지가 아닌, 증권사의 영업력 강화를 위한 과정 중 하나로 추후 동사의 자본력 확충 속도 및 비즈니스 모델의 구축, 그리고 은행과의 시너지 강화 등의 가시화가 관건이 될 전망.

BUY로 투자의견 상향 조정 – CET-1 비율 우위 기반 주주환원과 비은행 강화를 동시에

동사에 대한 투자의견을 BUY로 상향조정. 또한, 27년 이익 전망을 0.9%, 목표주가를 45,000원 (26E 목표 PBR 0.97배)으로 상향조정.

동사는 26E PBR 0.76배로 매력적인 수준에 거래되고 있는 가운데, 1) CET-1 비율 급등으로 은행/비은행 모든 부문에 보다 적극적 자산 성장이 기대되고, 2) 주주환원율의 속도감 있는 상승이 예상되며, 3) 예상 대비 빠르게 생보사 완전 자회사화 및 통합으로 27년부터 ROE 기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점에 초점 필요.

재무상태표

12월 31일 기준 (십억원)	2024	2025	2026E	2027E	2028E
현금및현금등가물	29,986	41,437	33,653	35,081	36,571
유가증권	88,025	135,054	132,925	140,477	148,513
대출채권	385,235	398,916	417,267	438,915	462,299
이자부자산	**503,246**	**575,406**	**583,846**	**614,473**	**647,382**
고정자산	5,700	6,372	3,932	4,129	4,337
기타자산	16,807	19,679	34,131	35,931	37,838
자산총계	**525,753**	**601,457**	**621,909**	**654,533**	**689,557**
예수금	367,423	377,293	391,263	410,551	431,334
차입금	30,117	34,183	30,484	31,897	33,383
사채	48,207	55,583	58,463	64,759	71,978
이자부부채	**445,747**	**516,271**	**534,909**	**568,772**	**605,986**
기타부채	43,494	46,422	46,798	43,487	37,933
부채총계	**489,858**	**563,598**	**582,689**	**613,298**	**645,018**
자본금	3,803	3,803	3,803	3,803	3,803
신종자본증권	3,810	3,711	3,511	3,511	3,511
자본잉여금	934	933	934	934	934
이익잉여금	26,951	28,790	30,702	32,708	36,002
자본조정	(1,735)	(1,682)	(1,682)	(1,682)	(1,682)
기타포괄손익누계액	334	462	145	145	145
소수주주지분	1,798	1,842	1,807	1,816	1,826
자본총계	**35,895**	**37,859**	**39,220**	**41,235**	**44,539**

손익계산서

12월 31일 기준 (십억원)	2024	2025	2026E	2027E	2028E
이자수익	22,013	21,189	23,836	25,336	26,767
이자비용	(13,127)	(12,158)	(14,054)	(15,028)	(16,090)
순이자수익	**8,886**	**9,031**	**9,782**	**10,308**	**10,677**
대손충당금	(1,715)	(2,087)	(1,611)	(1,437)	(1,286)
충당금적립후순이자수익	**7,171**	**6,943**	**8,171**	**8,871**	**9,391**
순수수료수익	1,833	1,886	2,004	2,112	2,228
기타비이자이익합계	(281)	25	(24)	(22)	32
총이익	**8,724**	**8,854**	**10,151**	**10,961**	**11,651**
판매비와관리비	(4,469)	(5,180)	(5,205)	(5,368)	(5,536)
영업이익	**4,255**	**3,675**	**4,946**	**5,593**	**6,115**
기타영업외이익	(32)	415	53	54	55
법인세차감전순이익	**4,223**	**4,090**	**4,998**	**5,647**	**6,171**
법인세	1,051	863	1,375	1,553	1,697
당기순이익	**3,171**	**3,228**	**3,624**	**4,094**	**4,474**
소수주주지분	85	103	180	179	179
당기순이익(연결)	**3,086**	**3,124**	**3,444**	**3,915**	**4,295**
충당금적립전영업이익	6,105	5,964	6,739	7,218	7,596

자산건전성

12월 31일 기준 (%)	2024	2025	2026E	2027E	2028E
고정이하여신/총여신	0.6	0.6	0.6	0.6	0.6
요주의이하여신/총여신	1.4	1.5	1.5	1.4	1.4
대손충당금/고정이하여신	151.9	129.0	167.3	172.0	175.1
대손충당금/요주의이하여신	63.1	53.9	69.4	71.5	72.9
대손충당금/총여신	0.9	0.8	1.0	1.0	1.0
순상각/고정이하여신	31.5	22.5	25.3	25.2	21.2
순상각/총여신	0.2	0.1	0.2	0.2	0.1
대손충당금 적립액/총여신	0.86	0.81	1.01	1.03	1.03

재무비율

12월 31일 기준 (%)	2024	2025	2026E	2027E	2028E
ROAA	0.6	0.6	0.6	0.6	0.6
ROAE	10.6	10.1	10.6	11.4	11.6
대출금성장률 (원화기준)	12.2	11.3	8.5	10.3	10.8
예수금성장률 (원화기준)	7.4	5.4	6.5	8.8	10.2
자산성장률	9.4	20.8	18.3	8.8	10.9
대출금/예수금 (원화기준)	100.4	99.5	99.5	99.5	99.5
순이자마진*	1.44	1.46	1.52	1.53	1.53
손익분기이자마진*	1.42	1.45	1.51	1.52	1.52
비용/이익	42.8	47.3	44.3	43.3	42.8
BIS 자기자본비율*	15.7	16.1	15.6	15.4	15.5
Tier 1 자본비율*	14.2	14.8	14.5	14.3	14.5
Tier 2 자본비율*	1.5	1.3	1.2	1.1	1.0
보통주 자본비율	12.1	12.9	13.4	13.2	13.4
단순자기자본비율	6.8	6.3	6.3	6.3	6.5

참고: * 은행기준
자료: 우리금융지주, 삼성증권 추정

주당 data

12월 31일 기준 (원)	2024	2025	2026E	2027E	2028E
EPS	4,156	4,256	4,773	5,572	6,319
BVPS	40,680	43,451	46,249	50,292	56,770
DPS	1,200	1,360	1,500	1,650	1,820
배당성향	28.9	31.8	31.4	29.6	28.8
총주주환원율	33.3	36.6	44.5	48.8	5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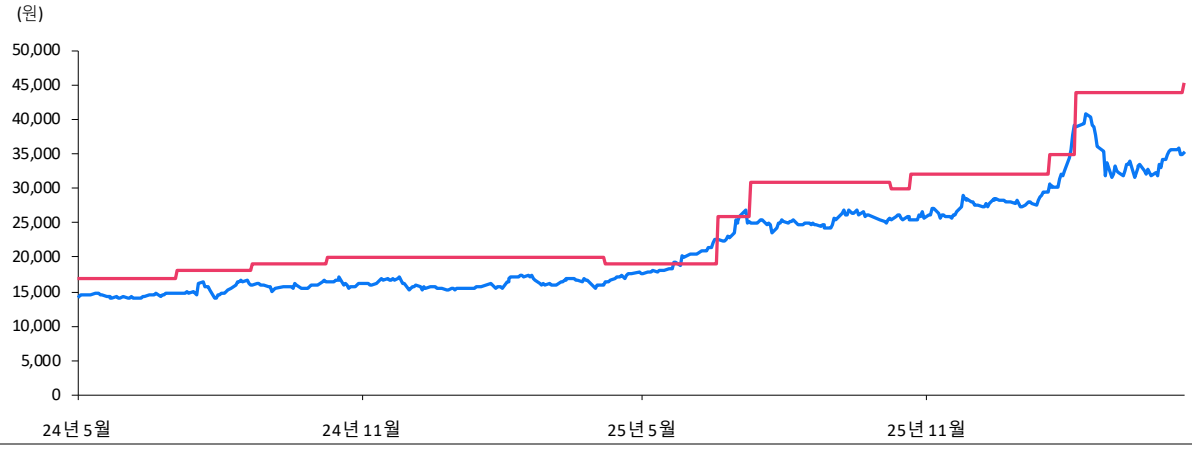
12월 31일 기준	충전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율 (%)	주당장부가 (원)	P/E (배)	P/B (배)	ROA (%)	ROE (%)	CET-1 비율 (%)	배당수익률 (%)
2024	6,105	3,086	4,156	24.7	40,680	8.4	0.9	0.6	10.6	12.1	3.4
2025	5,964	3,124	4,256	2.4	43,451	6.6	0.6	0.6	10.1	12.9	4.9
2026E	6,739	3,444	4,773	12.1	46,249	7.3	0.8	0.6	10.6	13.4	4.3
2027E	7,218	3,915	5,572	16.7	50,292	6.3	0.7	0.6	11.4	13.2	4.7
2028E	7,596	4,295	6,319	13.4	56,770	5.5	0.6	0.6	11.6	13.4	5.2

자료: 우리금융지주, 삼성증권 추정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분석자료의 애널리스트는 2026년 4월 24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2026년 4월 24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2년간 목표주가 변경 추이



최근 2년간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변경 (수정주가 기준)

일 자	2024/4/15	7/12	8/29	10/17	2025/4/15	6/27	7/18	10/17	10/30	2026/1/27	2/13	4/27
투자의견	HOLD	HOLD	HOLD	HOLD	HOLD	HOLD	HOLD	HOLD	HOLD	HOLD	HOLD	BUY
TP (원)	17000	18000	19000	20000	19000	26000	31000	30000	32000	35000	44000	45000
괴리율 (평균)	-15.86	-14.71	-16.59	-19.10	-0.72	-6.09	-18.43	-13.88	-14.42	-5.74	-22.17	
괴리율 (최대or최소)	-12.47	-7.78	-12.79	-12.90	18.68	2.88	-13.39	-12.67	-7.66	11.86	-7.27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 삼성증권은 기업 및 산업에 대한 투자등급을 아래와 같이 구분합니다.
*2023년 7월 27일부로 기업 투자 등급 기준 변경

기업

BUY (매수) 향후 12개월간 예상 절대수익률 15% 이상
그리고 업종 내 상대매력도가 평균 대비 높은 수준
HOLD (중립) 향후 12개월간 예상 절대수익률 -15%~ 15% 내외
SELL (매도) 향후 12개월간 예상 절대수익률 -15% 이하

산업

OVERWEIGHT(비중확대) 향후 12개월간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 대비 5% 이상 상승 예상
NEUTRAL(중립) 향후 12개월간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과 유사한 수준 (±5%) 예상
UNDERWEIGHT(비중축소) 향후 12개월간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 대비 5% 이상 하락 예상

최근 1년간 조사분석자료의 투자등급 비율 2026.03.31 기준
매수(85.2%)·중립(14.8%)·매도(0%)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